

연중 제11주일

기도서 370면 (B해)

제1독서 : 예제 17, 22-24

제2독서 : II 고린 5, 6-10

복음 : 마르 4, 26-34

숲정 이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 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마르코 5, 30-32).

강론

자라나는 씨

김 종길 신부 / 화산 주임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이다. 대지는 운동 초목으로 푸르게 물들어 가고 있다. 이런 싱그러움은 씨에서 비롯 된다. 씨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싹이 트고 순이 돋아나 초원과 숲을 이룬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 속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식물은 자기 종(種)을 번성 시켜 나간다.

그러나 생명의 신비는 식물 자체나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주시고 키워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인간은 씨 속에서 눈을 나게 할 수도 없고, 싹을 나게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는 등... 성장을 돕는 것 뿐이다.

인간은 자연의 힘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 지난 여름 수차례 쏟아진 폭우로 금강하류는 물바다가 되었다. 어떤 때는 300미터 이상이 쏟아졌다.

어떤 사람은 최루탄을 너무 많이 봐대서 하늘의 눈물 주머니가 터졌다고 말했다. 뒷산에 올라가 보니 금강 건너 세도 들 가운데 있는 집은 지붕까지 물이 넘실거리고 헬기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 돼지가 불 위에 떠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수문을 열면 오히려 강물이 흘러들어와 농민들은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저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요즘 농촌은 한창 바쁘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주로 부인들이 모를 심는 실정이다. 그것도 일손이 모자라 뽑아먹이를 하다보니까 주일에도 모를 심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일 미사에도 눈에 띄게 표가난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농번기에는 주일 미사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그리고 주일 미사까지 빠지면서 일을 해야 하는 농촌의 실정이 가슴 아프다. 그렇게도 열심히 일했지만 작년 수재민으로 전국 각지의 성원을 받은 것을 생각해서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심고 키우는 일에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믿는다.



소리

그분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

지난 6월 5일 새벽, 전주교구의 제5대 교구장이셨던 김재덕 주교께서 선종하셨다. 그분은 외길 41년을 사제로, 그 가운데 15년을 주교로 사셨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연유는, 교구장으로 재임한 8년의 삶이 너무나 굵고 뚜렷했기 때문이다.

김주교님께서서는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기에 신명을 다하셨다. 그분의 재임기간의 대부분은 유신시대였다. 주교님은 74년 서울에서 있었던 전국 성년대회에서 위정자들에게 민주헌정의 실사를 촉구하며, 교회내의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회의 쇄신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하셨다. 이후 교구내에서는 사제의 연행과 투옥, 그리고 집단폭행이 당국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헌정사의 분수령이 될만한 사건이 있었으니, 79년 9월의 중앙성당 기도회였다. 이때에 주교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평소의 소신대로 정권 최고책임자에게 중대선언을 하셨다. 이토록 주교님은 어렵고 어려운 시대에 예언자적 소명을 다하신 큰 빛이셨다.

또한, 김주교님은 평신도들을 각별한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목자이셨다. 주교님은 교구 평협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두시어, 79년에는 교구의 사목지침을 두시어, 79년에는 교구의 사목지침을 「평신도 사도직 활동 육성책의 해」로 정하셨다. 그리고 전국 평협의 총재주교로 재임하시는 동안에도 항상 자리를 함께 하시며 격려와 편달을 주셨다. 주교님은 평신도들에게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지이셨다.

이제 그분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는 마음가짐을 하며, 다시 머리숙여 기도하자.

숲정이 산책





전주교구 제5대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약 력

- 1920. 6. 1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갈리에서 출생
- 1941. 3. 3 서울 동성학교 졸업
- 1947. 10. 서울 성신대학원 졸업
- 1947. 11. 전주 대동성당
- 1951. 5. 전주교구청 경리주임
- 1954. 11. 화산 천주교회 주임
- 1955. 7. 남원 천주교회 주임
- 1958. 1. 김제 천주교회
- 1960. 3. 군산 둔물동 천주교회
- 1961. 4. 전주 중앙천주교회 주임
- 1962. 2. 전주교구 부주교 겸임
- 1966. 7. 이리 천주교회 주임
- 1969. 12. 전동 천주교회 주임
- 1972. 9. 전주교구 부주교겸 상서국장
- 1973. 2. 천주교 전주교구장 착좌
- 1981. 4. 천주교 전주교구장 은퇴
- 1988. 6. 5 선 종

인 사 말 씀

故 김 재덕(아우구스띠노) 주교님의 장례시
 기도와 참여로 일치를 보여주신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김 수환 추기경님과
 교황대사 이반 디아스 대주교님을 비롯한
 한국 주교단에 감사드립니다.

유감스럽고 죄송스러운 바는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故 김주교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1988. 6.

장례 위원회 위 원 장 김 환 철 친부
 부위원장 안 득 수

서범석한의원

원장 서범석(꽃배)
 위치: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 72-2665 · 75-3533



금성이리판매센터



금성통신특약점

이리 익산서비스 지정점

공무원연금가 할인판매 무선전화기 키폰동
 FAC 할부 3,6,9,12,15,18회 각종전화기 일절 취급
 전화: 2-8661, 3-9963, 52-5422, 자택 52-4040
 이리시 창인동 1가 181-4 (서울신탁은행 앞)
 대표 김 석 환 (마태오)

한 부

약혼·부용·파티·결혼

고 려 주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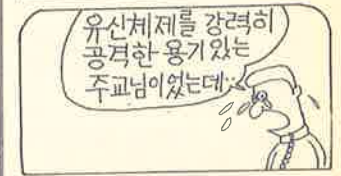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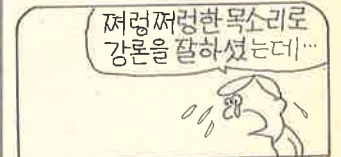
전 광원 (마르코)
 김 삼례 (소피아)
 전주시 고사동
 (신혼예식장 왼쪽)
 ☎ 6-1902

교 구 소 식

1. 사제 평의회 : 14일(화) 오전 10시 30분
2. 혼인 법원 : 14일(화) 오후 2시
3. 사회복지 월례이사 :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4. 수녀 연합회 피정및 총회 : 13일(월), 장소-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2,000원, 10시에 중앙성당에서 출발
5. 자연 가족 계획 교육 : 14일(화)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평협회관 2층. (85-5098)
6. 체펠라레 어머니 모임 :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수도자 모임 16일(목) 오후 2시 30분
7. M.E 봉사자 피정 : 주제-"치유와 용서" 일시-18일 오후 4시~19일 오후 5시, 장소-천호 피정의 집. 준비물-쉐링노-트 미사도구 간식.

※ 축/영명 성안토니오(13일) : 권영균, 양재철 신부님 축하합니다.

요십이 (775) 감병오



성서와 함께

6. 성서의 지리(B) : '초생달'의 성씨

'초생달'의 지역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성서의 무대에 등장하는 곳은 아브라함(기원전 19 C)의 고향 우르이다(창세 11, 31). 우르는 원래 항구도시였던 것 같으나, 나중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실어 나르는 모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페르시아에서 내륙쪽으로 후퇴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우르 지방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거리가 1,500km 정도였으니, 평지뿐 아니라 골짜기나 우회길을 이용했을 아브라함의 실제여정은 출잡아 2,000km를 웃돌았을 것이다. 그가 낙타로 이 거리를 여행했다면 40일은 족히 걸렸으리라.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도 잠깐, 가나안 땅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적국의 수도 니니베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남쪽 왕국 유다도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게 함락된 후 그 지도자들 역시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키로스 왕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바빌론에서 유배생활을 보낸다.

'비옥한 초생달'에 있어서 페르시아의 남진정책(BC.550년 시작)은 히브리 역사의 전환점이다. 페르시아가 들어오기까지 '초생달'은 그 안에서 여러 민족이 얽혀 싸울 땅정 외부 민족으로부터의 침입은 거의 없었다. 예외가 있다면 BC.13C 에게해로부터 흘러온 팔레스타인들과 흑해로부터 진출한 말과 활을 잘 쓰는 스키타인들(예레 4,6에 언급된 북방 민족)의 침입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은 곧 격퇴되어 '초생달' 내의 패권 각축전에 끼지는 못했다.

서기전 550년, 페르시아의 키로스 황제는 타우르스와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곧 바로 '초

생달'로 침입해 들어왔고, 더 이상 이 지역을 외부로부터 밀쳐낸 장소로 남겨두지 않았다.

한편 서쪽으로 그리스까지 영토확장을 시도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마침내 희랍 태생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하고(BC.333년) 나중에 희랍인들은 다시 로마인들에게 '초생달' 지역의 패권을 넘겨 주었다.

550년 전까지 히브리인들은 작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패배하기도 하면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초생달'의 패권싸움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550년 이후 그들은 더 이상 한 민족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적은 영토에서 생존에 급급한 단순한 종족 그룹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유배 전후를 중심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고취된 선민의식 사상이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 민족의 선민의식은 그들의 물리적 힘이나 우수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타민족의 침입을 받고 끊임없이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옛날 예집트에서 천민으로 행세하던 자신들을 해방시킨 아해 하느님을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켜 나갔다.

한 마디로 히브리인들의 선민의식 사상은 덧없는 인간에보다 역사의 원초적 주인이신 하느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고자 했던 신앙인들의 유산이었다. [정]

1분 명상

주여,
나의 삶이
오로지 당신만을
반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뉴먼 —

명동피부과의원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오거리 내정형외과 앞
☎ 74 - 1123 · 3 - 6709

■ 회 소 식 ■

성인병 민간요법 무료상담

일 시 : 1988. 5. 18 부터
장 소 : 전주 서학동천주교회 내
입 시연락 86 - 6226
상담자 : 經筋 · 灸(뜸) 요법연구회
전북지회장 조 베드로(정웅)
교육원장 신 방지거(봉갑)

종합화장품 활인코너
중양화장품 백 화 점

각종선물 도산매

중앙선물의 집

전주시 중앙성당 옆(구 한일싱크)
☎ 4 - 0841 박 원규(안담)
결혼 선물세트 특별무대

임야·녹지·건물·상가 투자상담은

대 창 부 동 산

김 행표 (클레멘스)
이 재우 (요셉나)

사무실 군산 63 - 8686
야간 → 자택 62 - 7844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1. 본당신부님 피정: 6일부터 16일까지 12일 경천 공소 아침미사 없음
2. 예비자 교리: 7월 영세 대상자 예비자 교리에 빠지지 맙시다.
3. 본당 유지비 결산: 5월말 결산보고 총수입10,644,030원 총지출 10,069,580원 현재잔액574,450원
4. 성삼회: 매월 둘째주 월요일
5. 교백성사: 미사후 성사불수 있음
6. 금주전례: 독서①경규승②최선영 봉헌-이종태부부
차주전례: 독서①정규철②윤삼순 봉헌-차복길부부

☐ 지난주 봉헌금: 161,490원 ☐ 교무금: 105,000원

*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흥원**

1. 주일미사: 모내기도 끝났으니 한주간의 삶에 감사하며 기도생활 열심히 합시다.
2. 교무금: 미납되신분은 속히 완납 바람.
3.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전교하는 신자 됩니다)
4. 가톨릭 평화신문: 한부씩 구독합시다. 구독료 5개월 5,000원
5. 금주전례: 해설-정대홍 독서-홍보래, 박영란
봉헌-황기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기문, 독서-남용규, 오윤자,
봉헌-양재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9,360원

*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상용**
수녀원 53-7157

1.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 합시다
창세기16,1-16 마태복음16,1-28
2. 불우이웃 돕기 폐품수집
미사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 청년회 단합대회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모 임: 꾸리아-공식미사후
구역형체회-화·목에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0,000원 ☐ 교무금: 285,000원

*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대**
수녀원 6-1539

1. 각 단체장 모임: 오늘공식미사후
* 사목회장, 청년회장, 자모회장, 까리따스회장, 꾸리아단장 등
2. 까리따스, 꾸르실리스트아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3. 구역장 반장 반상회지도자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전례자 모임(미사해설자, 독서자):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성당제초작업: 오늘 공식미사후(사목회임원, 청년회)
6. 성전보수공사에 협조하신분: 김창열1만원 누계5,367,000
7. 평일미사시간별경: 월,수-아침6시 화,목,금-저녁9시
8. 금주전례: 해설-이정인, 박성범 독서①권용욱 ②박성용
차주전례: 해설-임수진, 박재신 독서①박창중 ②김영자

☐ 지난주 봉헌금: 291,820원 ☐ 교무금: 265,000원

*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을수**
수녀원 9-3196

1. 사목회 월례회: 밤9시 2. 프란치스코 형제회: 오후2시
3. 축 이기페 회 발족: 회장 박판순 부회장 김철순 총무 한영자
간사 성가 정혜란 봉사 김은주 미화 김정하 제대 장복순 오라
서은자 수고하시겠습니다.
4. 첫영성체 대상자 접수: 부모님의 관심을 바랍니다. * 신수녀
님과 상의하여 주세요
5. 50주년 성금: 교구설정 50주년 성금을 마무리 합시다.
6. 금주전례: 특전 권이훈 이영순 공식 황병규 박유순 차주전례:
특전 이기우 양남순 공식 정진철 윤명순
7. 제물봉헌: 금주-백남용부부 차주-이석중부부

☐ 지난주 봉헌금: 401,660원 ☐ 교무금: 124,000원
☐ 감사헌금: 10,000원

*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규**

1. 본당신부님 피정: 6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수원말씀의 집 신
부님을 위하여 기도바칩시다.
2. 꾸리아월례회: 공식미사후 회합실에서
3. 학생회: 공식미사후 강당에서
4. 금주전례: 첫미사 김익수 민영기 공식미사 김상득 부부
차주전례: 첫미사 박준혁부부 공식미사 황명순 유숙자

☐ 지난주 봉헌금: 111,880원

*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상영**

1. 본당울뜨레아: 공식미사후
2. 데레사회: 공식미사후
3. 금주전례: 독서①김한숙 ②유상순 봉헌-이영근, 소춘옥 부부
4. 차주전례: 독서①남상현 ②김태철 봉헌-유현식, 황덕순 부부
5. 교무금에 관심 갖아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41,630원 ★ 교무금: 53,000원

*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태**
사무실 사목회장 **장현순**
수녀원 52-7634

1.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목요 공식방문: 월성공소
3. 신협단합대회: 일시-7월1일, 장소-속리산, 참가하실분 속
히 신청 바람.
4. 애령회 감사헌금: 신경자 20만원 감사합니다.
5. 감사: 신경자 성모회 5만원 애령회 위생복 다섯벌(일금 10
만원)
6. 금주전례: 해설-류용현 독서 ① 문재현, ② 박경순,
봉헌-김순례 최정덕
차주전례: 해설-김용자 독서 ① 윤석홍, ② 이오순
봉헌-신경자 설승자

☐ 지난주 봉헌금: 201,240원 ☐ 교무금: 100,000원
☐ 특별헌금: 최기복 자 첫영성체 감사금: 5,000원